# 1등 프로젝트결과물: [B반]에코포인트 분석.

혁신성장 청년인재 빅데이터 전략 마에스트로 과정

골든플래닛 실습조

김기영, 박소연, 송현정, 이동렬

#### 목차

- 1. 전반적인 의견
  - 1) 배운 점
  - 2) 궁금한 점
  - 3) 아쉬운 점
- 2. 세 가지 입장에서 평가
  - 1) 평가 기준
  - 2) 작성자 입장에서의 평가
  - 3) 고객 입장에서의 평가
  - 4) 평가자 입장에서의 평가

# 1. 전반적인 의견

# 1) 배운 점

연구주제의 타겟과 목표, 즉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정하고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명확하고, 그에 걸맞는 결론이 나왔을 때, 분석 도구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단, 분석 기법을 어떤 것을 쓰든, 그에 대한 개념을 완벽에 가깝게 이해해야 하고, 이를 듣는이에 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까지 하면 best라는 생각이 들었음.

기본적인 부분(다중공선성 확인 등) 놓치지 않고 다 함.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2) 궁금한 점

대체 이사람들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정도 결과물을 냈을까?

# 3) 아쉬운 점

실제 운수업 종사자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확인 과정이 없는게 아주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음.

# 2. 세 가지 입장에서 평가.

### 1) 평가 기준

- A. 연구의 논리적 흐름
- B. 프레젠테이션 전달력
- C. 사용된 기법의 적절함(+분석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 D. 데이터의 질.
- E. 연구의 활용성(문제해결능력)

## 2) 작성자 입장에서의 평가

#### (A. 연구의 논리적 흐름 B. 프레젠테이션 전달력 C. 사용된 기법의 적절함, D. 데이터의 질)

A. 연구의 논리적 흐름에 빈틈이 없음. 즉, 원래 목표하고자 했던 바를 적절한 모델을 사용해 결론을 잘 도출해 내었음. 수미상관 잘 됨. 지표 선정 등 데이터에 가하는 변형의 근거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 즉,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빈틈없고 굉장히 상세했음.

- B.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흐름을 조정하고, 시각적 효과를 적절하게 넣어 원하는 바를 잘 보여 주었고, 강조할 부분을 잘 강조하여 전달하였음.
- C. 사용된 기법의 적절함 => 완벽하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각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프레젠테이션에 드러내고 있음. +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한 느낌. 즉,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되고 있는 느낌.

#### 3). 고객 입장에서의 평가

#### (A. 연구의 논리적 흐름 B. 프레젠테이션 전달력 D. 데이터의 질 E. 연구의 활용성(문제해결능력))

B. 일단 데이터 분석 과정의 EDA가 무척 상세하게 들어갔다.

분석과정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타겟을 선정하였고, 어떤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어떤 결과값을 냈는지가 시각적으로도 나와 있음. 또 말하고자하는 부분을 잘 강조하여 나타내었음.

골든 플래닛 제주 기업 컨설팅 자료에서 트렌드 분석 => 경쟁사 분석으로 이어졌던 것 처럼, 시장 현황을 먼저 본 다음에 분석이 들어감. 흥미가 없던 사람들도 쉽게 몰입할 수 있을 만큼 배경설명을 잘 함.

E. 시작부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갔고, 이를 통계적 보여 주며 신뢰도를 더함. 더불어 "연구 대상이 되는 분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잘 알고 접근하여, 연구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느낌을 받음.

즉, 수소 충전소 기대 효과,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해결책 제안을 해서 더 좋았음.

### 4). 평가자 입장에서의 평가

#### (A. 연구의 논리적 흐름, B. 프레젠테이션 전달력 C. 사용된 기법의 적절함, D. 데이터의 질)

D. 데이터의 질 - 연구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처리하였고, 원하는 특성을 선택하여 분석에 들어감. 사용할 특성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에 활용할지 결정을 한 과정이 보여 신뢰가 감. 단, 데이터 수집 사이트는 있으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 적절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는가는 알 수 없음.